

이화동창회보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 OF SO. CA NEWSLETTER

이화여자대학교 남가주동창회 2015년 11월

발행 장계원 / 편집 이정현

회장 인사말

사랑하는 남가주동문 여러분...

장계원(도서76)



사랑하는 이화여자대학교 남가주동창회 동문 여러분, 무덥던 여름이 지나는가 싶더니 어느 새 겨울이 깊어 가네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맡았던 회장도 어느 새 임기의 끝에 와 있습니다.

오랜 전통의 남가주동창회와 여러 선배님들의 그동안의 수고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했지만 돌이켜 보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늘 도와 주신 모든 임원들과 이사님들 그리고 행사 때 마다 참석하시고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많은 동문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매일 기도하게 하시고 늘 지혜와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화를 사랑하는 많은 동문들을 만나는 큰 기쁨도 있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동창회 연말 파티에서 모든 동문님들을 뵙기를 바랍니다. 기숙사 건립 기금 모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디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인사말

존경하는 남가주동창 여러분께

김주경(관현77)



다사다난했던 2015년을 보내며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나눔과 섬김의 이화 정신을 바탕으로 남가주동창회는 벌써 70을 향해 갑니다. 우리 동창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은 여러 동문님의 사랑과 협력, 많은 관심과 참여 덕분이었습니다.

지난 10월 Atlanta에서 열린 북미주지회연합회에서 신임 최경희 총장님께서 세계 최고를 향한 '혁신 이화'의 비전을 나누셨을 때 동문으로서 긍지를 느꼈습니다. 이런 모교의 비전에 발맞추어 숙원이었던 이화여대 여름 학교 참가 장학기금을 마련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남가주지역 대학생들의 모교 여름학교 참가를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에 맡기어 운영하는 이 장학금은 내년부터 남가주동창회 이름으로 신청을 받아 후년부터 지급됩니다. 장학기금이 마련되기까지는 이화 정신을 삶으로 실천하는 동문들의 아낌 없는 후원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동창회가 동문 자녀를 위한 장학금, 모교 재학생을 위한 장학금에 이어 남가주 지역사회를 위한 장학금까지도 마련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임기를 마치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임원, 이사님들 그리고 선후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정기총회 및 송년 파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남가주동창회 정기총회 및 송년 파티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재미있는 게임과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흥겨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15년 12월 13일 (일요일) 저녁 6 : 30

장 소 : Wilshire Country Club

301 N. Rossmore Ave., L.A., CA 90004 (323) 934-1121

회 비: \$80 (부부동반 \$150)

Orange County에서 오시는 분을 위해 Bus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0)

라구나우즈 / 어바인 / 가든그로브 / 플러톤

문의: 장계원 회장 (714) 496-6621 Kaygjun@yahoo.com, ewha.alum.sc@gmail.com

모교 소식

최경희 총장 미국 방문



최경희 총장은 10월 30일~11월4일 방미, 5박 6일 간 이대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및 이화국제재단 이사회 참석, 하버드대학교에서 특강 등 바쁜 일정을 가졌다.

10월 30일~11월 1일 미주 20개 도시에서 온 300여 명의 동창과 이화국제재단 멤버들이 참석한 '2015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참석한 최 총장은 한국 최초의 종합대학으로 시작, 세계 최고 여자대학으로 발전한 이화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밝혔다.

11월 2일엔 하버드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리더십 포럼의 특별 연사로 초청돼 '한국 대학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 이화의 과거, 현재, 미래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위기 상황에 놓인 한국 대학의 현실을 소개하고, 129년의 역사 속에서 혁신을 거듭해 온 이화의 발전사를 살펴 보며 이화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하버드대 한국학 연구소의 특강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박근혜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 등의 유명 인사들이 연단에 섰던 고품격 학술의 장이다. 모교는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하버드대 서머스쿨 프로그램 파트너로 선정되어 2006년부터 10년 연속 하버드대와 공동으로 여름 계절학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하게 하버드대 학생들과 학습 및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HCAP(Harvard College in Asia Program) 프로그램의 파트너로도 선정되어 2007년부터 공동 운영 중이다. 하버드대 최초 여성 총장인 드류 길핀 파우스트 총장이 지난 2013년 '명예 이화인'으로 선정되어 본교를 방문한 바 있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모교 방문



1. 학생들의 환영을 받으며 들어오는 올랑드 대통령
2. 최경희 총장,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와 함께 ECC를 둘러보는 올랑드 대통령

2016년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앞두고 국민 방문한 프랑수와 올랑드(Francois Hollande) 프랑스 대통령이 11월 4일 모교를 방문해 최경희 총장의 환대를 받았고 모교의 대표 건축물인 국내 최대 지하캠퍼스 ECC를 설계한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Dominique Perrault)의 안내를 받으며 ECC의 내·외부를 둘러보았다. 이후 올랑드 대통령은 최경희 총장, 두 나라의 여러 장관 등 고위 인사들과 함께 '기후환경과 녹색성장'을 주제로 열린 고위급 좌담회에 참석하였다.

모교,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평가 최상위 등급 획득

교육부가 지난 4월부터 약 5개월간에 걸쳐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를 포함한 총 298개대학을 대상으로 고등교육기관 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모교가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최우수등급인 A 등급을 받은 대학은 4년제 34개교, 전문대 14개교이며, 모교는 A 등급 대학 중에서도 뛰어난 성적으로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번 결과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끝없는 도전과 혁신을 시도한 이화의 전통과 '세계 최고를 위한 혁신 이화'의 비전을 공유하며 모든 구성원이 하나 되어 합심한 노력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2016 수시모집에서 16.6 대 1의 경쟁률

2016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 결과 총 1,872명 모집에 31,023명이 지원하여 평균 16.6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는 작년에 비해 1,333명 증가한 것이며 따라서 경쟁률도 0.7 포인트 상승했다. 모집 단위 별로 보면 초등교육과(138.7:1)가 가장 높았으며, 의예과(114.5:1), 화학생명분자과학부(40.3:1), 스크랜튼학부(38.9:1), 뇌·인지과학전공(38.7:1), 화학신소재공학부(41.6:1)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동창회 소식

총동창회북미주지회연합회 2015 총회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2015 총회가 아틀란타 지회 주최로 10월 29일부터 11월 1일 까지 아틀란타 Crown Plaza Atlanta Perimeter at Ravinia 에서 열렸다. 남가주 지회에서는 35명의 동문이 참석하여 예년에 이어 모든 지회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10/29 목: 전국에서 이날 모인 동문들과 미리 도착해서 내쉬빌 과 차타누가 1박 2일 관광을 마친 동문들이 함께 아틀란타 지회에서 준비한 도시락으로 저녁 식사를 하며 1년 만에 다시 만난 반가움을 나누었다. 오후 8시에 열린 북미주지회연합회 이사회엔 남가주지회의 6명 이사를 포함 50여 명의 이사들이 참석하여 여러 안건을 논의했다.

10/30 금: 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Stone Mountain 일일 관광, 정호문 화백의 "동양화 부채 만들기", 정소영 교수의 특강 "스트레스 데리고 살기", 전인경 화가의 "요즘 미술 이야기" 등 흥미로운 행사들이 있었다. 총장님과의 만찬엔 최경희 총장, 김영주 동창회장, 김순영 고문, 오진경 대외협력처장, Marc S. Mullinax 국제재단 이사장과 임원들, B.J. Park (박병진) 조지아주 하원의원 및 내빈들, 그리고 북미주 20여 개 지회의 250여 명의

동문 등 총300여 명이 참석했다. 본교 기숙사 신축 기금으로 김정희 북미주지회 연합회장이 그 동안 각 지회에서 모금한 \$220,000 약정서를 총장님께 전달했다. 남가주지회에서는 \$30,000을 약정하고 열심히 모금하고 있다. 식사 시간 동안 각 지회 별 동영상 상영되었고 탈렌트 쇼에서는 남가주지회 30여 동문들이 윤주원 동문의 작품을 입고 화려한 Knit Fashion Show 를 펼쳤다.

10/31 토: 아침 식사 후 북미주지회연합회 2015년 정기총회가 있었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의 인사와 각 지회별 사업 보고, 북미주연합회 회계 보고, 이사회 안건 처리가 있었고, 2016년 총회는 휴스턴에서 개최하기로 선언하였다. 코카콜라 박물관 및 시내 관광과 정호문 화백의 "사군자 교실" 그리고 심성술 교수의 건강 세미나 "치매, 무엇이 궁금하세요?" 특강이 있었다. 연례 만찬에서는 2014년 탈렌트쇼 우승팀인 아틀란타 지회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공연이 있었다.

11/1 주일: 아침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김재홍 목사님을 모시고 주일 예배를 보았다. 총장님과의 대화 시간을 마지막으로 꿈 같이 지나간 나흘 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내년에 휴스턴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을 나누었다.

모교 기숙사 건립 기금 캠페인

남가주지회는 모교 기숙사 건립 기금 \$30,000을 약정하고 모금하고 있습니다. 현대적 새 기숙사 시설이 모교의 발전에 꼭 필요한 중요한 사업인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지만 동창들의 기부 참여율이 대학 순위 평가에 한 지표로 적용되는 것을 알고 있는 동창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교의 상대적 순위가 남녀공학대학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와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동창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모교의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번 기숙사 건립이야말로 모교에 대한 동창들의 자긍심과 애정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적은 액수 (\$10 이상) 라도 좋으니 모든 동문들이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후원금은 전액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며 모든 후원자 명단은 모교에 보내져 기증자 명단에 기록될 것입니다.

기부금 수표 수신자는 EWhA 로 쓰시고 다음 주소로 우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SC

P.O. BOX 5164, Cerritos, CA 90703-5164

문의: 장계원 회장 (714) 496-6621 Kaygjun@yahoo.com, ewha.alum.sc@gmail.com

장경해 차기회장 (909) 821-2477

해외 동창 모교 방문 프로그램 참석



모교의 대외협력처에서 5월 29일과 6월 1일 양일간 주관한 해외동창 모교방문 프로그램에 총 36명이 참가하였는데 남가주지회에서는 다음 5명이 참가했다: 김봉덕 (체육 60), 김부자 (교육 61), 김영교 (영문 63) 김정순 (간호 75), 장경해 (피아노 75).

5월 29일에는 대강당에서 거행된 창립 129주년 기념식이 있었고 이어 흥겨운 축하 행사와 총장 공관에서 열린 VIP 오찬에 초대되어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6월 1일에는 교내 버스를 타고 잘 훈련된 재학생 안내로 학교 교정을 돌아보았고 총장 회의실에서 최경희 총장님과 다과를 나누며 담화의 시간을 가졌다.

그 후 목동병원을 방문하여 병원 식당의 동문 영양사가 차려낸 깔끔하고 격식 있는 점심을 대접 받은 후 병원 시설을 돌아보았다. 병원의 현재와 미래 설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모교의 병원이 월등한 기술을 가진 여성 전문병원으로서 우뚝 서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졸업생과 그 가족이 이대 병원 시설을 이용할 경우 파격적인 할인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어 마곡에 있는 신설 병원 부지를 돌아 보고 병원 신축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시대의 빠른 변화 요구에 발맞추어 발전해 가고 있는 모교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가까이서 접할 수 있어 좋았고, 특별히 가는 곳 마다 극진한 배려와 사랑으로 해외 동창들을 맞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였다.

남가주동창회 영구장학기금 설립

남가주동창회는 “남가주동창회 여름학교 장학기금 (Southern California Alumnae Summer School Scholarship)” 설립을 위해 지난 10년간 모은 기금 (\$102,161.31)을 이화국제재단에 11월 13일 기증했다. 기부금은 전액 영구기금으로 예치하고 매년 발생하는 이자만 특정 목적에 쓰게 된다. 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인가 받은 미국 대학의 재학생으로 이화여자대학교 Summer School 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대학생 (US students enrolled in accredited US college/ university who want to study in Ewha Summer School)으로 제한되며 특별히 남가주 거주 학생 (zip codes 900xx-928xx)을 우대한다.

이사회

10월 19일 Garden Suite Hotel 에서 열린 이사회에 18명의 이사가 참석해 다음과 같이 안건을 처리했다.

- 2016년 임원단 선출 및 인준: 신임회장 장경해; 신임 이사장 장계원; 신임 이사 이정현
- 아틀란다 총회
- 기숙사 건립 기금 모금
- 그간 모금한 10만불을 영구장학기금으로 국제재단에 기증할 것을 인준함. 장학금은 남가주 거주 대학생들이 모교의 여름학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급할 것임.
- 지난 봄 개정한 남가주동창회 회칙 중 임원단 선출 위원회 관련 회칙을 보완해 줄 것을 김주경, 박신화, 박화자, 송은섭, 장계원으로 구성된 개정위원회에 요청. 따라서 이사장이 이사 중 한 명, 회장이 임원 중 한 명을 선출위원회에 임명하는 방식을 개정하여 이사회, 임원회에서 각각 한 명씩 선출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인준을 받았다.

임원회의



임원 회의가 6월 25일, 8월 24일, 9월 28일 있었다. 회보지 발송, 9월 추석 행사, 합창 공연, 10월 북미주 지회 참가, 12월 송년 파티 행사 등 여러 안건을 논의하고 계획했다.

연례 한가위 이화 가족 피크닉



남가주 이화 동문피크닉이 10월 3일 (토요일) Buena Park의 Ralph Clark Regional Park에서 열렸다. 한가위 명절을 기해 100여 명의 선후배 동창과 가족들이 모여 풍성한 음식, 화창한 날씨,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했다. 갈비와 콩치구이, 밥, 별미 오이 냉국, 찜, 야채, 과일, 냉커피 등 다양한 음료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회장님 이하 여러 임원들, 그리고 뜨거운 화덕 불 앞에서 묵묵히 갈비와 콩치를 끝까지 구워 주신 이화의 사위 (남편), 아드님들의 희생으로 이화 가족들이 맛난 음식을 편하게 즐길 수 있었음을 감사드린다. 식사 후엔 동창회 행사 때마다 활기찬 목소리와 툭툭 튀는 유머 감각으로 웃음을 선물하는 한나리 동창의 진행으로 청백 양팀으로 나뉘어 즐거운 게임과 여흥 시간을 가졌으며 참석자 모두 선물도 받았다. 행사 때 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한가지 아쉬움은 젊은 동창들의 참여가 저조했다는 점이다. 우리 동창회의 전통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선후배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주변의 이화 동창들, 특히 젊은 후배들의 참여를 권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

동문합창단 2015 Annual Concert

엄인용 지휘자, 주희정 반주자 및 단원 31명으로 구성된 남가주동문합창단의 제 11회 정기연주회가 9월 20일 (일요일) 오후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있었다. 시인 조춘(정춘자 동문, 약학 60) 작시 "해바라기" 합창연주곡 등 모두 19곡을 공연했다. 특별 출연으로는 현재 USC 피아노연주 박사 과정 유육진(피아노 06) 동문의 독주, 음악 전공자들로 구성된 이대 중창팀 Ewha Vocal Ensemble의 연주가 있었다. 북미주 수십 개의 지회 중 매 해 정기적으로 공연하는 합창단을

가진 지회는 남가주지회 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실로 우리의 긍지이다. 남가주 동문합창단이 11년이나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이화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의 재정적 후원과 협조의 결과임을 기억하며 감사드린다. 이화여대 합창단은 항상 문을 활짝 열고 추가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영혼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감동과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이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하실 분의 연락을 기다린다. (총무: 박신화 213-842-2447)



선교부



선교부는 매주 수요일 12:00-2:30 한국플라자 4층 (Olympic과 Harvard)에서 모인다. 매주 15-20명의 동문들이 모여 이수훈 목사님 (화학 59) 말씀을 듣고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피땀 흘려 봉사하는 동문 선교사 200명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다. 매달 두 선교사님께 \$100씩 선교비를 지원하고 있다. 모든 동문에게 개방되어 있는 선교부에 많은 참여 바란다. 문의: 조남화(간호 63) 선교부장: 310-838-6606, 310-801-2471

남가주동창회 OC 모임



매달 마지막 토요일 정오 12시에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으니 Orange County 거주 동문들의 적극적 참석을 바란다. 문의: 박광순 회장 (기독교문학) 714-331-2128

녹미회



녹미회 모임이 8월 1일 예다아트, 11월 11일 정보경 녹미회장 집에서 두 번 열려 내년 1월 9일에 있을 제 4회 녹미전에 대해 의논했다.

이번 녹미전은 Africa Malawi 여인들에게 물지계를 기부함으로 그들을 불구로부터 해방시키고 경제적 자립을 도와 주는 아름다운 뜻을 가진 기획전으로 아나하임 시의 격조 높은 Muzeo Museum에서 열린다. 참가 신청 및 문의: 정보경 회장 562-260-4899

bochung153@yahoo.com

South Bay 지역 동문회



토렌스와 팔로스버디스 지역에 거주하는 80-90학번 동문끼리 친목을 다지는 모임이다. 스마트폰 카톡을 활용 번개팅으로 만나 친교를 나누며 각종 유익한 생활 정보를 공유한다. 현재 22명으로 새동문이 연결되면 환영 모임도 갖는다. 올 마지막 번개미팅은 장계원 회장을 모시고 16명이 참석하였다.

골프회

정기적인 골프 모임을 통해 친교를 나누고 있는 남가주 이화여대 골프회는 관심 있는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문의: 정민경 (불문 76) 714-310-3511

동창근황

이희숙 동문 (약학 62)



지난 40년 동안 이민 목회 사역을 내조하면서 체험한 목회 현장의 많은 경험들을 모아 목사 사모들을 위한 매뉴얼 "최고의 에제르가 되다"

(쿠팡출판사, 2015)

를 출판했다. 그의 첫 저서 「목사와 결혼한 죄밖에 없어요」 (쿠팡출판사, 2008) 이후 두번째 책이다. 그는 이대 시절 선교사로 부터 전도 받은 후 미국으로 유학하여 인디애나 주 Butler University 약학 대학(1965) 및 대학원 졸업(1967), 대학 병원에서 약사로 근무(1965~1978) 했다. 그후 이병희 목사와 결혼, 클리블랜드한인교회를 개척하면서 사모의 애로점을 경험하게 되어 이 책을 쓰게 되었다. Houston Theological Seminary (신학 석사), Fuller Seminary (목회학 박사) 등 신학을 하고 Houston Theological Seminary 교수로도 재직했다. 오하이오 주 멘토미연합감리교회, 클리블랜드한인교회, 휴스턴한인교회, LA 동양선교교회, 라성세계복음교회 사모 등을 역임했다. 연락처:

Home 818-243-4330; Cell 818-970-8070;

E-Mail: heesook1939@gmail.com

김영교 동문 (영문 63)



네번째 수필집 「그리고 소중한 기억들」 (서울문학출판부, 2015)을 냈다.

암을 극복하고 시 창작을 시작한 그는 제 8회 가산 문학상, 제 5회 해외문학상, 제

10회 이화 문학상 · 제35회 노산 문학상 · 제20회 미주문학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South Bay 평생대학에서 시 창작 교실, 가디나 글사랑 창작교실 등에서 시, 수필, 칼럼 등 글쓰기와 후학 지도로 문학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저서로는 동인지 「하오의 사중주」, 시집 「우슬초 찬가」, 한·영시집 「신호등」, 수필집 「소리 지르는 돌」, 시집 「물 한 방울의 기도」, 시집 「너 그리고 나, 우리」 수필집 「길 위에서」, 시집 「새롭게 떠나는 작은 새」, 시집 「감사의 걸음을 입고」 수필집 「꽃구경」, 시집 「흔적」 등이 있다. 연락처 이메일: kimyoungkyo@hotmail.com

성기순 동문 (섬유예술 69)



10월 24일부터 11월 6일 까지 이웃 돕기 기금 모금 소품 전시회를 Los Angeles Sun Gallery에서 열었다. 민화의 교육, 홍보를 위해 14년째 미주한국민화협회 회장, 수본 성기순 민화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

성 동문은 한인타운 노인 및 커뮤니티 센터 (올림픽 & 놀만디)에서 2년 넘게 매달 2회 민화 강사로 무료로 봉사하고 있기도 하다. 서울에서 매년 개최되는 전국 민화공모전에 2차례 심사위원으로 초청 받기도 한 그는 미국 전 지역의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열리는 한국문화원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민화 세미나를 10년 째 가르치고 있으며 매 2년마다 한국문화원에서 미주한국민화협회 회원전을 여는 등 민화 홍보에 지치지 않는 열정을 쏟고 있다. 연락처: 미주한국민화협회/수본민화연구원 680 Wilshire Pl. #400, LA, CA 90005 213-387-3723

최용순 동문 (서양화 77)



홍익민화연구소 소장이며 한국민화협회 LA 지부장인 최용순 동문은 남미 칠레 카톨릭대학교 동양학센터 주최 제8회 한국학 국제학회에서 한국민화 전시와 워크숍 초청을 받고 11월 11일-12일까지 대학 캠퍼스

스에서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국제교류재단의 후원을 받았으며, 중남미 지역에 한국 민화를 전파하는 최초의 문화 행사로 “제2의 한류”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 동문은 지난 8월 15일 범동포행사위원회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행한 광복70주년 기념식장에서도 ‘위안부’ 추모 민화 전시회도 개최했다.

이제인 동문 (김민자; 피아노78)



서울민화공모전에서 추천작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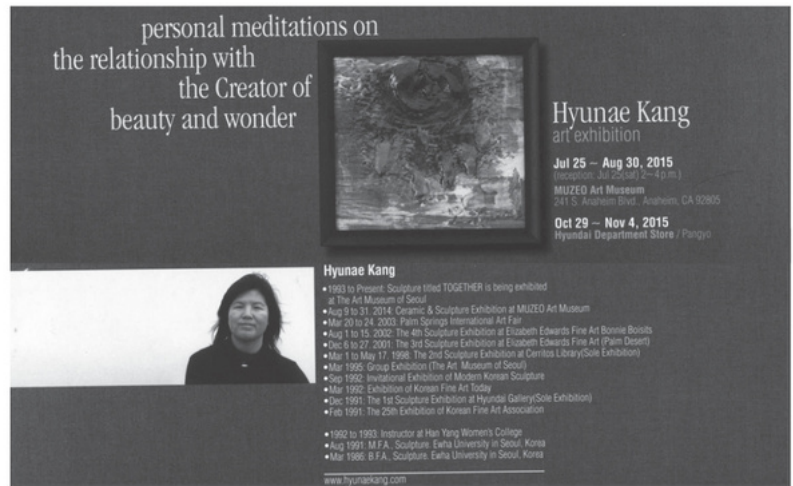
이 동문은 성기순 동문 (섬예 69)의 민화 교실을 통해 2007년 처음으로 민화를 시작한 후 선조들의 훌륭한 그림에 매혹되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보석을 깨내 듯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어느 해는 공모전에 병풍 작품을 두 개씩이나 출품하여 모두 특선을 받기도 했는데 작년엔 우리나라의 급상하는 기운을 민화

의 소재인 소나무와 두루미로 그려 넣은 작품으로 특선을 받아 추천작가로 등극하게 된 것이다. 민화를 시작하기 전에는 한미박물관 여성회의 회장직으로 수년간 봉사하기도 한 그는 민화를 통해 애국하는 스승 성기순 선배의 본을 받겠다고 다짐했다.

의 소재인 소나무와 두루미로 그려 넣은 작품으로 특선을 받아 추천작가로 등극하게 된 것이다. 민화를 시작하기 전에는 한미박물관 여성회의 회장직으로 수년간 봉사하기도 한 그는 민화를 통해 애국하는 스승 성기순 선배의 본을 받겠다고 다짐했다.

홍현애 동문 (조소 86)

개인전이 아나하임 시의 Muzeo Art Museum 에서 7월 2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8월 30 까지 열렸다.



한편 홍 동문과 그의 제자들 (예다아트 미술학원 수강생)은 아프리카의 극빈 아동돕기 기금 조성을 위한 한국 순회전시회를 열고 (10/5~10 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 로비, 10/12~16 서울아산병원, 10/24~29 서울국회의사당) 홍 동문의 작품 2점 및 제자들의 작품 70점을 전시했다. 홍 동문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3년 전엔 말라위 어린이 500명에게 1년간 점심지원을 했는데 이번 한국 순회 전시회에서 많은 후원을 받아 내년엔 지원대상을 4,000명까지 늘릴 수 있게 돼 모두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중앙일보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2&branch=NEWS&source=LA&category=&art_id=3777252

2015년도 동문자녀 장학금 신청자 모집

남가주동창회는 매년 공모를 통해 동문 자녀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 요강은 다음과 같다.

- 자격: 1. 동창회에 등록된 동문의 자녀
2. 고등학교 12학년과 대학교 재학생 (1-4학년)
- 방법: 신청서, 성적표, 에세이를 다음 주소로 우송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SC
P.O. BOX 5164, Cerritos, CA 90703-5164
- 마감: 2015년 12월 10일
- 문의: 장계원 회장 (714) 496-6621
Kaygjun@yahoo.com / ewha.alum.sc@gmail.com

2015년 회비납부와 후원금 현황

(2015년6월1일-2015년12월30일)

동창회비

강신화 (교육공학 90)
 김규련 (간호 72)
 김영순 (영문 60)
 김춘화 (생물 85)
 백정옥 (생물 88)
 양근향 (과학교육 86)
 이명애 (사회생활 62)
 이부자 (간호 63)
 이안나 (영문 61)
 이영옥 (영문 60)
 이윤경 (교육 73)
 이정현 (도서관 76)
 이정희 (국문 60)
 이해란 (교육 74)
 임경애 (영문 62)
 임성숙 (물리 81)
 임순희 (사생 59)
 전춘자 (정외 63)
 정민경 (불문 76)
 한영숙 (영문 60)
 호진희 (가정 68)
 홍연선 (중문 87)

이사회비

고복주 (생물 70)
 김주경 (관현악 77)
 하명숙 (체육 66)

기숙사 건립기금

\$1000

고복주 (생물 70)
 김윤자 (간호 66)
 김주경 (관현악 77)
 박화자 (간호 66)
 유남현 (보건교육 72)
 이정현 (도서관 76)
 장경혜 (피아노 75)
 장계원 (도서관 76)

\$500

고은주 (영문 61)
 김정순 (간호 75)
 박광순 (기독교문학 64)
 송은섭 (정외 57)
 송정현 (교육 57)
 안성옥 (가정 61)
 양근향 (과학교육 86)
 윤수현 (조소 68)
 윤혜경 (의대 80)
 장영순 (사회사업 61)
 정태숙 (교육 61)
 한혜숙 (사회 68)

\$300

김봉덕 (체육 60)
 동양순 (영문 44)
 문인순 (생미 68)
 이보경 (생미 60)

\$200

곽영숙 (사회 65)
 김민자 (피아노 78)
 박경희 (섬예 78)
 박만혜 (사회 62)
 배순자 (무용 72)
 성기순 (섬예 69)
 이양훈 (사학 62)
 이정자 (사회 62)
 이희숙 (약대 62)

\$100

박신화 (기독교문학 70)

기숙사 건립기금은 계속해서 모금하고 있습니다.

회비 및 후원금 납부는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담당회계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Payable to : EWUAA P.O. Box 5164 Cerritos, CA 90703-5164

회계: 황혜원(무용 85) Tel (310) 408-5244 e-mail : haewon22@gmail.com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P.O. Box 5164, Cerritos, CA 90703-5164